

“도시사찰 열린문화공간으로”

보조사상연구원 학술회의 ‘불교와 도시문화’ 19일 개최

보조사상연구원(이사장 현호 스님) 제9차 학술회의가 ‘불교와 도시문화’를 큰 주제로 오는 19일 법련사 영산대법전에서 열린다. 교계의 비중있는 학술단체인 보조사상연구원 설립 10주년과 전통문화 계승의 중심역할을 할 도시포교단의 상징적 존재 법련사 영산대법전 전공을 기념하는 이번 학술회의는 수행의 산간불교와 포교의 도시불교와의 관계정립과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도시에서의 포교활성화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 집중적으로 조명될 예정이다. 회의 개최를 앞두고 미리 배포된 발표문을 요약 발췌한다.

‘불교와 도시-인도불교를 중심으로’를 발표하는 정병조교수(동국대 국민윤리학과)는 ‘인도 불교의 성립은 도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며 부처님 재적 윤리를 제시하고 가르친 종교로 도시의 지지가반이 불락하자 그 영광도 다하게 되는 팔라야 말 수 없는 운명적 관계에 있었다고 설명한다.

경전 등이 무제한 제공된다’고 소개한다. 또한 꽃꽂이 서도 태극권 같은 것들도 신도들에게 지도하며 무료독서실 운영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사성씨(불교텔레비전 제작국장)는 ‘한국 도시불교의 문제와 방향-현대도시사찰의 건축과 장엄을 중심으로’를 제목으로 한 발표문에서 ‘7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에 발맞춰 ‘건물의 수직화 증중화’라는



◆늘어나고 있는 도시사찰의 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해 포교의 전진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법련사내 불일미술관에서의 전시회 모습.

일·대만 사찰문화기능 소개 **법산스님** 인도불교 수행처 도시근처 **정병조교수** 문화자원화 명소로 만들자 **공종원씨** 정법구현 위한 건축 장엄을 **홍사성씨**

의 유행(遊)경로와 수행자들의 안거처, 정사를 세운곳이 주로 도시근처였다. 이를 근거로 들었다. ‘당시 인도에서 농촌촌락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바라문교와 달리 불교는 도시 분위기에 맞는 새로운 사회 경

법산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은 ‘외국의 도시불교’에서 ‘일본과 대만의 절들은 도시민들에게 각종 전시회나 교양강좌 등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며 ‘대만내 어느 사찰에 가더라도 불교적이나 법요집, 수 있게한 점이 이해롭다. 해 도 스님은 비디오 제작 취

새로운 형태의 사찰들이 건립되고 있다’며 ‘현대사찰건축은 불교교리나 철학을 이미 지화하려는 시도를 보여주어 내부공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씨는 도시사찰이 ‘한가하고 출입하기 쉬운 곳에 위치해야 하고 비탈지도 포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도시상 유치원 공연장과 전시관 찾길 놀이터와 같은 다양한 문화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씨는 또한 ‘한국의 도시사찰은 모델이 확립된 지형이 아니라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진행형이며 아직도 다양한 시범착오와 실험을 거쳐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도시사찰은 정법구현을 위한 건축과 장엄이 되어야 할 것’이라 결론지었다.

한 법련사 구룡사 능인선원 삼보사 정도포교원 등의 예를 들며 ‘문화활동을 위한 상설공간과 기관을 설치해 사찰의 문화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미술관 다원 서점 등 복합문화공간을 갖춘 도시사찰의 전형으로 등장한 법련사 영산대법전은 인사를 시간등 경사등 전통문화기어를 잇는 중심에 있는 만큼 도시사찰의 모델이 되도록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요람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씨는 ‘도시사찰의 건물이나 성보 성물을 자체가 문화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사찰의 건축과 장엄된 건물자체가 문화를 표상하기도 한다’며 이런 기능을 문화자원화 및 관광자원화한다면 좋은 문화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정숙 기자

임의 소식

불교계 최초의 불교뮤지 비디오가 출시됐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해도)에서 기획 제작한 찬불가특선 뮤직비디오 ‘임의 소식’에는 ‘일

교계 첫 찬불가 비디오 나와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무상송’ 등 12곡 수록

의 소식(대행스님 작사 김동환곡) ‘무상송(대행스님 작사 변규백 곡) ‘주인공이 무엇일까(대행스님 작사 유익산 곡) 등 12여곡의 선법가와 찬불가 그리고 대행스님 법어가 수록돼 있다. 특히 이번 비디오는 미안마의 대표적인 불교음악인 쇠타 군담과 불상춤, 태극의 새벽사원·에머럴드사원 등과 국내

골프장건설은 안돼요

조각가 박찬갑씨(한국불교미술인협회장)가 민족의 성지 가야산이 골프장 건설로 말미암아 황폐화되는 상징적작품을 선보였다. 골프공을 머리에 뒹집어쓴 해골의 모습으로 가야산의 문화재훼손 및 생태계질멸을 보여준 이조각은 청동으로 가로 30cm 세로 31cm. 박찬갑씨는 문화유산 보호차원과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해인골프장 반대 단체들에 차례로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신리문화제 알차고 다채롭다

10월 8-10일 경주일원서 열려
원효성사 무애가무행등 40여 행사

찬란했던 신리문화를 재현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벌어지는 제25회 신리문화제가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경주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주시와 신리문화선양회 등이 주관하는 신리문화제는 격년제로 개최돼 신리시대 생활양식과 불교문화를 다양하고 생동감있게 보여준다. 7일 전야제행사로 열리는 화랑·원효 선법대회를 비롯 길놀이 민속경연 예술행사 전시회 학술행사 등 총 40여 행사가 실시된다. 원효스님이 불교를 대중화하기 위해 몸소 보여줬던 무애가무행을 탈춤구조의 연극적 형

리기 등은 올해 새로 추가된 종목들이다. 특히 연날리기는 신리가 존속했던 기간을 상징하는 992개의 연을 띄워 장관을 연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8일 공개행사로 관창무 바라춤 비현무 등체세움 정도차산농악 예천공저농요 등이 개최되며 전국국악대전 신리미술대전 경축음악회 등도 눈길을 끄는 행사이다.

조계사청년회합창단 12일 정기연주회

조계사청년회 보리수합창단 창립18주년을 기념하는 정기연주회가 오는 12일 저녁 7시부터 조계사 아의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이번 연주회는 찬불가와 국악, 가곡, 가요 등이 연주되며 사물놀이 팀 온세미로, 노랫사 등이 특별출연한다.

불심시심 (65)

보내는 정 두터운 정

扶桑初日上寒空 찬 허공으로 솟는 부상의 아침해
(부상초일상한공)
遠近平原曙色通 멀고 가까운 평원에 밝은 빛 통하다
(원경평원서색통)
路出馬頭山色外 길은 말 머리 산빛 밖으로 뚫리고
(로출마두산색외)
月斜天耳樹陰中 달은 하늘 귀 나무 그늘 속으로 빛기다
(월斜天耳樹陰中)
樓臺寂寂無人家 누대는 쓸쓸히 모이는 사람 없고
(루대적적무인가)
江海茫茫雪覆風 강 바다는 아득히 눈바람 뿐
(江海茫茫雪覆風)
到老交情深且篤 늙은이끼 사귀는 정 깊고 도타워
(到老交情深且篤)
別時揮涕亦無窮 이별 정자 지는 눈물 끝이 없구나
(別時揮涕亦無窮)
(별정취체역무궁)

설암선사가 명해(明海)라는 스님을 묘향산으로 보내면서 지은 이별의 시다. 아침이 되어 떠나게되는 당시의 풍경을 여실하게 쓰고 있다. 이러한 풍경은 어제도 내일도 있을 일이지만, 정다운 이를 보내야 하는 오늘따라 더 새삼스러워진 풍경이다. 더구나 떠나야 하는 거리가 동서남북 어디든 먼 거리로 막힐 것이지, 이곳의 경치로 그곳의 경치를 연상하며 천애만리의 회포를 서로 아쉬워하는 표정이 시어 밖으로 배어나고 있다. 아침해가 솟아 멀고 가까운 평원에 서색(曙色)인 희망의 빛으로 통한다. 길은 어디로 통해 있었지만 가지 않는 길은 의미가 없다. 말 머리에 따라서 길은 결정된다. 그러나 길은 말 머리따라 통하는 것이다. 저 산의 정족으로 사라질 말 머리가 바로 길인 셈이다. 너무 빨리 재촉해서 떠나는 길이었나 보다. 달이 아

경주소개 인터넷사이트 ‘불’

‘부처님의 땅...’ ‘웹کم투 경주’ ‘경주유적’ 등 인터넷에 경주 남산과 불국사 석굴암 등을 소개하는 웹사이트의 개설이 늘어나고 있다. ‘부처님의 땅, 겨례의 땅 경주’와 ‘웹کم투 경주’ ‘경주 유적’ 등의 사이트가 그것으로 불교성지 경주를 소개하는 좋은 가이드일뿐 아니라 사진과 불교교리, 당사방법 등의 정보도 들어있어 가족과 함께 둘러볼수 있는 가족용 사이트로도 적합하다는 평이다. ‘부처님의 땅, 겨례의 땅 경주’는 정희석(부산지원)등법원 특별3부)가 만든 것으로 석굴암과 불국사 경주 남산의 역사적 유래와 답사기 학술적인 논문 등 폭넓은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석굴암 코너에는 최희순 선생의 수필을 비롯해 석굴암과 관련된 논문, 삼국유사의 기록등 각종 자료가 수록돼 있다. ‘웹کم투 경주’는 운영한체(대구 매일신문 편집부)가 직접 찍은 사진과 함께 불교문화에 대한 자세한 안내, 호텔 교통 등의 관광정보등을 영어로 소개하고 있다. 이밖에 도 포함공대에서 제작한 ‘경주 관광’과 동국대가 제작한 ‘경주 유적’도 인기가 높다.

“여성들의 건강을 위하여 황토만든”

전통 속작유기 “탄생”

당신의 건강진단서, 이상 없습니까?

남이 심하다, 가끔 하혈을 한다. 월경불순과 월경통이 빈번하다.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고 있다. 치질때문에 고민스럽다. 혹시 자궁암에 걸린것은 아닐까? 이런 근심, 걱정, 전통 속작유기를 만나면 즉시 알람이 해스됩니다. 하루 30분씩 전통 속작유기에 앉으면 있어도 허벅지질질이나 모든 자궁병 질환은 저절로 치료되고 예방되기 때문입니다.

“전통 속작유기로 치유되는 질병 사례들”

(전통 속작유기는 이런 병들을 치유시키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여성 부인병, 냉, 대하, 빈비, 치질, 월경불순, 월경통, 전립, 요도염, 방광염, 자궁근종, 자궁암, 원일종, 산후풍, 산후조리, 결핵속작유, 임종 및 임역순환장애, 폐가 냉한사란, 설사, 심한사란, 노폐물제거, 기어, 어드름 방지, 전신피로, 폐, 가슴 근절제거, 경년기장애 등

남성 치질, 전립선염, 비대증, 전립선암, 조루증, 정력감퇴, 발기부전, 빈뇨, 전노, 소변관란, 비뇨통 등

하복부질질한 자궁병, 냉·대하, 치질, 빈비, 방광염, 전립선염등을 치유시키는데 그 어떤 방법보다도 탁월한 치료효과를 나타내었던 옛 선조들의 지혜와 슬기를 담은 전통적인 세가지 재래식 치료요법을 그대로 살려 이 세가지 치료요법이 한국에서 집중적으로 병행되어 나올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좌욕기 구성요인 각각마다 자체에서 발생하는 약성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극대화시킨 가정용 좌욕용설 요법기입니다.

특징 및 구성요인

- ① 좌대(좌욕대): 황토를 주원료한 분질 자기로 좌대를 만들어 뜨거운 열을 받으면 황토의 신비한 약성분이 더욱크게 작용하여 황토의 특성을 살려 좌욕기용을 자연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올라오는 약력으로 좌대가 뜨겁게 되므로 황토방에서 분해 황토구슬처럼 떨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② 내열방기: 질병에 대해 기적의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원치외선이 많이 발생하도록 바이오 세라믹이 80%이상 다량 함유된 특수 도자기(陶磁器)로 약육을 끓이는 내열방기를 만들었고 빨리 식지 않고 1시간 이상 뜨거운 열을 방사하도록 두껍게 넣고 넓게 만들었습니다.
- ③ 약육: 죽은 약육중에서도 가장 약효가 좋은 해풍(海風)을 맛으로 강인하게 자란 강와 약육만 엄선하여 끓일때 편리하고, 죽의 약성분이 잘 우려나올 수 있는 인내에 무한한 중이때에 넣어서 사용하기가 간편합니다. (100일분)
- ④ 100%황토가우: ‘본초강우’, ‘중의보장’, ‘항암진정방’, 등의 의사가 황토가 들어있는 물은 그 약성이 매우 높아 이물을 끓였을때 다른 물질과 섞이면 그 효능을 최상급의 물질로 변화시킨다는 기록에 따라 약육의 효능을 배가시키고 황토의 신비한 약성을 받고자 순수 황토가우를 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 ⑤ 내열방기에 약육과 황토가우, 복숭아수액을 넣고 끓여서 황토분침때 위에 그대로 올려 놓기만 하면 누구나 1시간 이상을 손쉽게 좌욕을 할 수 있어 편리하며, 장소에 구애받지않고 좌욕기 한대로 남녀노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 ⑥ 오세 안이있어도 불편하지 않고 질병치유효과가 크도록 구조 및 규격이 설계되었습니다.

특별보급 가격: ₩ 230,000

※ 본 좌욕기에 대하여 더욱 상세히 아시고자 하는 분은 전화주시면 카달로그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속뜸기

“임, 종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속뜸기”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시니까?
○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 않으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낫지 못 방법을 다써도 치료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속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 속뜸으로 다시 살아나실증에까지 걸기 때문입니다.

바라밀 속뜸 건강요법·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속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인연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기원,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심장, 저·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으로 걸리기 장애, 기어, 주근개, 어드름, 배변불, 피부미용, 시력장애, 알레르기성 재질, 습·담배냄이 드시는 분, 종양질환.

각종 성인병 예방법

보급가격: ₩150,000

전국지회 모집 전국시·군·구지회 미개설지역·병문 및 전화상담

제조원: 바라밀 건강연구소

- 본회: (지회상담문의)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전화: 0335)34-9490, 39-1906/ 아간(0342)706-3060 서울사무소: (02)508-3284/5
- 본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원장: 각광스님) 부산: 불교바라밀 건강연구소 전화: (051)864-3740

서울 (02) 강남553-0261-2 서초508-3284-5 송파417-8922 성북942-6430 은평305-2910 종로747-7033 노원942-6430 미포715-2062 강북994-3108 반포597-7581 영등포782- 6080 도봉942-6430

경기지역: 의정부: (0351)873-0532 44-3114 수원(0331)291-8549 분당(0347)66-0049 용인(0335)35-4293 광주(0347)65-1047 과천(02)503-9352

부산(051) 부산진구:803-0108 연제구:864-3740 대구(053) 북구(칠곡)323-2598 남구:474-2828 대전(042) 중구:222-4936 서구:534-4211

경남지역: 미산(0551)23-9016 창원(0551)62-0076 진주(0556)73-0039 울산(052)74-7536

광주(062)동구:228-8544 전북지역:전주(0632)75-6733

경북지역: 경주: (0561)772-3255 구미: 구미: (0578)83-5308 포항: (0562)82-3155-6

제주도(064) 제주시(22-3324) 송북지역: 제천, 단양(0443)46-3023 강원지역: 강릉(0391)645-2117